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6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12호 (226)

1963년 6월 (하)

차 례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우리 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 길에서 위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가렬한 전쟁까지 겪은 조선 인민이 극히 짧은 기간에 모든 난관을 뚫고 달성한 위대한 승리는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의 복잡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 섰다.

우리는 전면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만들며 조국 통일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닦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은 오직 자력 갱생의 원칙,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계속 견지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혁명 기풍이며 철저한 혁명 정신이다.

이것은 자기의 혁명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의 힘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립장이다.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본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과 호상 지지 원조는 혁명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국제 혁명 력량의 장성은 개별적 나라에서의 혁명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준다.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 주며 지지 성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국제적 련대성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주인은 오직 그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이고 그의 향도적 력량인 맑스-레닌주의 당이며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의 내부적 력량이다.

혁명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나라의 혁명도 다른 사람들이 해 줄 수 없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얼마나 급속히 진척되며 그것이 어떤 심도로 수행되는가, 혁명이 언제 승리하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나라 혁명 정세의 성숙 정도와 자체 력량의 준비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바로 이와 같은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리로부터 흘러 나온다.

혁명 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은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 앞에 내부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어떤 조건 하에서도 적과의 투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우며 혁명 승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창조해 내며 도달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부단히 전진하는 정신—한 마디로 말하여 혁명에 대한 가장 높은 책임성과 견결성을 요구한다.

혁명 수행에서 외부의 지지와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도대체 혁명을 수행할 수도 없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바로 이것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내려는 창조적 정신이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안일과 자만, 동요를 모르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복잡 다단한 속에서도 혁명적 절개를 지키고 투쟁을 계속할 수 있으며 혁명 수행 도상에서 부닥치는 우여곡절도 이겨 내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 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자력 갱생은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운동은 원래 국제적으로 련합된 자본의 철쇄를 끊어 버리는 투쟁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운동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항상 국제주의적이다.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적 혁명 운동의 지지 성원 속에서 우선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기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를 수행한다. 공산주의자들과 그 당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것은 국제 자본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다른 나라 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다른 나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실제의 국제주의는 하나, 오직 하나 뿐이다. 즉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혁명 운동과

혁명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며, 례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투쟁과 이와 같은 로선을, 오직 이 한 로선만을 지지하는(선전으로써, 동정으로써 또 물질적으로) 것이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도, 국내 반동들과의 끊임 없는 투쟁에서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일관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항일 빨찌산은 후방도 없는 간고한 조건 하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적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며 탄약도, 식량도, 의복도 자체로 해결하면서 15 개 성상이나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실로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 승리의 매 걸음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정신의 산 모범으로 된다.

항일 빨찌산들의 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당은 해방 후에도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힘에만 의거하려는 민족 허무주의와 사대주의 경향을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자체의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형제 국가들의 지지 성원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조선 혁명을 촉진시키는 가장 옳은 길로 될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튼튼히 다지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된다.

이것은 우리 당이 자기가 지닌 민족적 임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 지닌 국제주의적 임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실로 자력 갱생은 철저한 혁명적 립장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립장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자립적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제 나라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를 축성하여 나가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일성)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나라의 자주 독립을 보장함에 있어서나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나 또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어떠한 나라든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확고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국제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성이 없이는 정치적 자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 나갈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자주권을 말살하며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예속하기 위하여 그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억제하며 그것을 자기들의 경제적 부속물로 전변시키고 있다. 공업이 발전된 나라가 락후한 농업 국가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하고 략탈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관계는 완전한 평등,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호상간의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형제적 호상 원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 자주성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자면 반드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주, 평등, 내정 불간섭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부인하는 자들은 사실에 있어서 매개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자면 반드시 기계 제작 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중공업을 건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에 기초하여 경공업도, 농업도 다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인 기술로 장비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에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나라들과 락후한 농업 국가들에서 력사적인 락후성을 시급히 청산하고 선진 국가들의 대렬에 들어 서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공업을 창설하며 나라를 공업화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의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자연 부원과 원료 자재, 자체의 민족 간부들에 의하여 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 발전되여야 한다.

민족 경제가 하나의 종합적 경제 체계를 이루어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제 발로 확고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여야만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과학 기술과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더 빨리 이행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생산 전통》이나 《자연 경제적 유리성》 혹은 《수익성》을 론하면서 제한된 일부 생산 부문만을 발전시

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나라의 민족 경제를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며 다른 나라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움직여 나갈 수 없는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공업이 발전하지 못 하였던 나라들에서 《생산 전통》이 있는 부문만 발전시키게 된다면 이 나라들은 현대적 공업을 가지지 못 한 채 계속 락후한 처지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개 나라에서 자체의 요구에 적응하게 경제 건설을 주동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수도 없으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생산의 자연 경제적 조건과 전통이란 결코 고정 불변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과학과 기술, 생산의 발전에 의하여 개변시킬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더욱더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만들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부들을 동원 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힘을 배가할 수 있다.

수익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타산함과 동시에 인민 경제의 전반적 견지에서 보아야 하며 또한 목전의 수익성을 타산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견지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만일 수익성에 대하여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도대체 어떠한 새로운 공업 부문도 창설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개별적 기업소의 수익성을 전반적 인민 경제의 수익성 우에 올려 세우며 목전의 수익성을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적 리익의 우에 올려 세우는 것은 장사'군식 타산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유해로운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할 수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 내의 자립적인 경제 단위로서 호상간의 밀접한 련계와 협조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는 그를 형성하고 있는 매개 단위가 강력할 때 그 위력도 강대해지며 내부적인 경제적 련계도 더욱 심화 발전될 수 있다.

만일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의 민족 경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지 못 하여 확고한 자립성을 보장하지 못 하고 독자적인 자기의 역할을 놀지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되며 이는 결국 전일체로서의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제가 다 건전하게 발전하여 자기의 자립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기초에서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원만히 움직이며 자기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립적 민족 경제가 있어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협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나라들 간의 경제적 원조와 동지적 협조 관계를 더욱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사실상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실제적으로 경제적 협조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국제적 협조의 리익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원만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담보로 된다.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경제적 련계와 협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남김 없이 자체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초보적인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페쇄적인 경제》(《아브따리끼야》)라거니 사회주의 체계로부터의 《고립화》의 길로 나간다거니 지어는 《민족주의》라는 따위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페쇄적인 경제》니 《고립된 경제》니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 있지도 않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 것, 많이 요구되는 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부족한 것은 형제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해결하며 동시에 형제 나라들에 없거나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들과 제품들을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그들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협조하면서 투쟁해 나아가야 한다. 형제 나라들 호상간의 경제적 협조는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데 돌려져야 하며 생산력 발전의 소여 단계에서 모든 나라가 다 유무 상통하여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형제 나라들이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 사회주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립적 민족 경제를 튼튼히 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호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만 매개 나라의 경제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고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매개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족적 리익과 국제적 리익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제도와 세계 사회주의 경제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투쟁에서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정치적 자주성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인민

생활은 어떻게 향상되여 가는가를 주의 깊게 바라 보고 있다.

특히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앞에는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며 쟁취한 독립을 공고히 하며 완전한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가면 밑에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화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 나라 인민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들과 거의 같은 처지에 있던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의 긴밀한 경제적 협조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확립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선 민족들이 어떻게 진정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행복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매개 나라에서의 경제 건설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으로 될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수억만 인민들을 사회주의 편에 끌어 들이는 거대한 힘으로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인민은 과거 사회로부터 락후하고 기형적인 경제를 넘겨 받았으며 기술 문명으로부터 뒤떨어져 있었다.

해방 후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조국이 량단된 결과 경제의 편파성은 더욱 가중되였으며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인민 경제는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으며 우리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편파성과 락후성을 청산해야 하였고, 인민 생활을 하루 속히 안정 향상시켜야 하였으며 부강하고 통일된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자체의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아야 했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선 혁명의 승패를 규정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것이 없이는 독립도 할 수 없고, 건국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사활적 문제였다.

력사적으로 경제와 문화가 락후하였고 민족 간부가 부족하였으며 경제 건설의 경험이 없었던 형편에서 자립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락후하고 무력하였던 탓으로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고 모욕 당하고 천대 받던 쓰라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겯고 나아갈 수 있는 독립되고 힘 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되기 위하여, 형제 나라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하여 일관하게 이 로선을 견지하였으며 완강하게 실천하였다.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는 정신으로 자체의 힘과 국내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극히 짧은 기간에 자립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여 놓았다.

생활은 우리 당이 내세웠고 일관하게 견지하였으며 오늘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위력을 과시하여 주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위대한 힘은 경제의 다방면적인 발전,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공업은 전후 기간(1954~1962년)에 년 평균 33.6%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다.

1962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나라 공업은 해방 후 첫 10년간(1946~1955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자립 경제 건설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중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54~1962년간에 우리 나라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22배로 장성하였으며 1962년에 그 생산액은 해방 초기인 1946년에 비하여 145배에 달하였다.

중공업의 지원 하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다. 1962년에 알곡 생산은 해방 전에 비하여 근 2배로 장성하였으며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나라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946년에 공업과 농업 총 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였는데 1960년에는 그것이 71%에 달하였다. 과거에 가장 락후하였던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한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제고되였으며 공업 부문들 간의 호상 관계가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였다.

이제는 우리가 제 발로 걸어 갈 수 있게 되였으며 제 힘으로 필요한 기계와 설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였으며 자체로 대규모적인 발전소, 화학 공장, 야금 공장 등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상점망을 우리의 생산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였으며 일용 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이미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앞으로 인민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성과적 건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놓았다.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남조선 인민들에

재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반부 인민들은 북반부의 현실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오직 이 길이 진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며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을 성취하려는 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형제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할 수 있게 되였으며 호상 협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혁명 기지를 철벽 같이 다짐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믿음직히 지키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축성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나라 인민들과의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킬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위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발휘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리 상 훈

자력 갱생은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본질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 앞에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이며 투쟁 원칙이다.

《자력 갱생—이것은 공산주의적 혁명 기풍과 혁명 정신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 새 사회를 건설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세계 혁명에 복무하는 길이요, 앞장 서 나아가는 형제 나라들의 원조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다.》(김 일성,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78~79 페지)

이러한 자력 갱생의 정신은 혁명에 대한 우리 당과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립장으로, 확고 부동한 활동 원칙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자기 활동의 전 과정에서,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도, 국내 반동들과의 끊임 없는 투쟁에서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일관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왔다.

우리 당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두철미 관철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들의 심장 속에 깊이 스며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일찌기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발휘된 전통적인 공산주의적 투쟁 정신이다.

* *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과 선진 사상가들 속에서는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자주적 정신이 발휘되고 있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정신은 주로 외세에 매여 달려 나라와 인민을 예속과 멸망에로 끌어 간 지배층과는 반대로 민족적 자부심을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적인 독립을 유지하며 외래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조국을 수호하며 자기 힘으로 남부럽지 않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바로잡아 나가려는 데서 표현되였다.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와 타락, 민족 허무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인민 대중과 실학과 사상가들, 진보적 작가들의 활동,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 강토와 인민을 보위한 애국적 인민들과 장군들의 투쟁 등에서 선조들의 숭고한 자주적 정신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인민들의 나라의 자주적인 독립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자주적인 정신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반대하는 의병 투쟁, 3.1 봉기 등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나아가서 1920 년대에 들어 와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민족 해방 운동의 부단한 장성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조상 전래의 자주적 사상은 1930 년대에 이르러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에 의하여 확고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공산주의적인 혁명 사상으로 발전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조선 혁명을 기어코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고야 말 혁명적 주견을 견지하였으며 이것을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변함 없이 견지해야 할 기본 립장으로, 모든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조국의 해방과 광명한 미래를 자체로 개척하기 위해 혁명 대렬에 떨쳐 나선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자력 갱생의 정신은 바로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의 유기적인 련계에 관한, 무엇보다도 매개 공산주의자들의 첫째 가는 기본 임무는 자기 나라의 혁명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철저한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이였다.

실로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 승리의 매 걸음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정신의 산 모범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항일 무장 투쟁 로선은 일제의 멸망을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우리 인민 자체의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일제를 격멸 소탕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의 집중적 표현이였다.

1920 년대 말~1930 년대 초 일제의 미증유의 략탈과 파쑈적인 탄압은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사소한 합법적 무대도 가질 수 없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의 전도에 암운을 드리우게 하였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일체 진보적인 사회 운동과 지어는 단순한 문화 계몽 운동까지 무조건 총검으로 탄압하였고 수 많은 애국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애국자로 자처하던 《우국 지사》들로부터 공산주의 대렬에 숨어 들었던 가짜 《혁명가》들에 이르기까지 민족 해방 운동의 일시적 동반자들의 대부분이 투쟁을 중단, 포기하거나 원쑤와 결탁하는 데로 나아갔다.

새로운 추세로 앙양되는 대중의 혁명적 진출도 그 투쟁 자체가 가지고 있던 일련의 결함들로 인하여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실로 당시의 정세는 적의 발악적 공세를 타승하고 조선 혁명을 더욱 발전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공세에 의하여 조선 혁명이 좌절되는 것을 방임하는가 하는 엄중하고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조선 혁명을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바로 이 때에 조선 혁명의 주인된 립장과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을 소유한 공산주의자들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은 그 나라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며 그 나라 혁명은 그 나라 인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 혁명 투쟁의 명확한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환상도 없었다. 그들은 오직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근로 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적인 무장력을 조직하여 발끝까지 무장한 강대한 반혁명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천명하였고 바로 그 길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 대중을 인도하였다.

1931년 안도현에서 소집된 지방 당 및 군중 단체 책임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가 무장을 잡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무장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앉아서 한탄하거나 적들의 귀축 같은 만행을 보고 아우성이나 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어 나 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력사 상 그 류례를 보기 드문 간고한 투쟁 조건과 엄혹한 혁명 정세는 오직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로선을 택함으로써 훌륭히 타개될 수 있었다.

만일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려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적극적인 투쟁 방침, 항일 무장 투쟁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적들의 공세에 의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은 물론 불가피적인 혁명의 퇴조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오직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일제를 격멸 소탕하고 조국을 해방하려는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손에 무장을 잡고 원쑤 격멸의 길에 나섬으로써만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승리의 신심을 주고 그들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결속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횡포하고 간악한 일제를 타승할 수 있었다.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은 또한 애국적인 우리 인민들의 힘을 믿고 그를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서 혁명 투쟁의 기본 방도를 찾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 활동의 첫날부터 《로동 계급의 해방은 로동 계급 자체에 의하여 전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맑스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선 혁명의 주인이며 그의 담당자인 광범한 인민 대중을 능숙히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부단히 교양하였다.

원래 공산주의 운동은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을 그 나라 인민들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격멸하고 혁명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들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들의 혁명적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길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이 원칙에서 물러 선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인민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며 외세에 의존하여 결국은 혁명을 망쳐 버리게 된다. 사실상 지난날 종파 분자들은 례외 없이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인민 대중의 힘에 의거해서 혁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떠한 《권위》에 의하여 자기의 종파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이와는 달리 자력 갱생의 원칙을 견지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은 오직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 대중의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으니 만큼 대중과의 련계에서 힘의 중요한 원천을 찾았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구호 하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의 힘에 의해서 혁명 과업을 해결하려는 확고 부동한 자력 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조선 혁명의 운명을 결정 짓는 근본 문제로 간주하였으며 군중들을 항일 무장 투쟁의 편에 쟁취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국내외의 광범한 군중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정치 공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며 각종 군중 단체들을 조직하는 등으로 혁명 력량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였다.

1930 년대 후반기 일제의 발악이 극심한 가장 암담한 시기에도 적의 심장부에 육박하여 조선 혁명의 근거지—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장백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였고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국내진공 작전을 통하여 비운에 싸여 있던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 주었고 그들을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시켰다.

조선 혁명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구상이 가장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조국 광복회의 10 대 강령 제 1 조에는 《조선 인민의 총 동원으로 광범한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조선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10 대 강령에서 천명된 이 현명한 방침은 당시 나라의 모든 애국적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민족의 모든 애국 력량을 일제와의 투쟁에 남김 없이 동원하여 조선 혁명을 조선 사람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주위에 굳건히 뭉쳐 나간 강력한 주체적 혁명 력량이 있음으로 하여 항일 유격대는 15 성상이나 일제와 계속 싸울 수 있었으며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다.

경험은 자기의 힘,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을 하려는 자력 갱생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만 인민 대중을 성과적으로 혁명 투쟁에 동원할 수 있으며 그들에 의거하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은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과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려는 창조적 정신을 발휘케 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과 함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고도의 혁명적 창의성과 불요 불굴의 혁명적 기백으로 원쑤를 치고 장기간의 간고한 무장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기어코 자체로 개척하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혁명 사상을 간직한 항일 유격대는 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15 성상을 하루와 같이 투쟁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국내외적으로 아무러한 무장적 지원과 후방이 없이 적들에게 사면 포위된 환경에서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곤난도, 형언할 수조차 없던 간난 신고도, 인간 생활의 최악의 역경도 조국 해방의 성전에 일떠 선 항일 투사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무기는 어디서 구하는가?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은 적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다. 지혜를 짜내고 장소를 택하여 목숨을 두려워 안 하고 나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잡을 무기는 해결할 수 있다.》(김 일성) 이것은 그 어떠한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인민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무장 투쟁의 길에 나선 유격대원들의 확고한 투쟁 원칙으로 되였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투쟁 원칙에 따라 맨 주먹으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의 결사적인 투쟁을 통하여 식량과 피복을 해결하였으며 적의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였다.

그들은 령하 40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키를 넘는 눈'길 속에서 며칠씩 굶으면서 밤을 지새이기도 하였고 달려 드는 원쑤를 좌우 전후에 두고 하루에도 수십 차씩 힘겨운 전투를 계속하였다.

숭고한 혁명 사상,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나선 그들에게 애로와 난관들은 문제로도 될 수 없었으며 오늘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창의 고안들로써 투쟁 도상에 필요한 것을 찾아 내고 없는 것을 만들어 내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양산대 권총》, 《나무포》 등과 낮은 형태의 《소리 폭탄》,《고추 폭탄》 등으로 원쑤와 싸웠으며 담배 줄기, 호박 덩굴, 변소'간과 부엌의 흙 등으로 화약을 만들고 깨여진 가마, 달구지 바퀴테 등으로 유명한 《연길 폭탄》까지 만들어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들은 아무러한 밑천도 없는 데서 재봉침 바늘, 환자들과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의약품, 수술 도구까지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냈으며 필요한 출판 기자재, 학용품들도 훌륭히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자력 갱생의 정신은 필요한 것은 찾아 내며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면서 원쑤와 싸워서 승리하는 창조적 정신, 끝없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기백으로 충만되게 하였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는 다만 풀과 물이 있는 데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살며 싸우려는 불요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원쑤와 싸워 승리하였으며 끝내는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결코 자기 나라 혁명만 잘

하면 된다는 협애한 민족 본위 사상과는 인연이 없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국제 혁명에 이바지하려는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15여 성상 손에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면서 세계의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을 철저히 옹호하여 투쟁하였으며 중국의 우수한 아들딸들과 함께 항일 련군을 조직하고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였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항일 유격대는 일제를 멸망시키고 조선 혁명을 승리하기 위한 자기의 불굴의 투쟁으로써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였으며 그 어려운 조건 하에서 다만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국제 혁명을 지지 옹호하였다.

경험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끝까지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발휘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해방 후 18년간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더욱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처지에 있던 우리 인민은 로동당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세계 선진 국가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이 하여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이 땅에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 누구나 일하며 다 공부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무상 치료를 받으며 다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오늘의 위대한 현실은 백두의 밀림 속에서 일제를 격멸하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앞으로 해방될 조국 땅 우에 제 손으로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할 것을 구상한 공산주의자들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실생활에 구현된 것이다. 우리 당의 자력 갱생 사상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힘차게 궐기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하며 국제 혁명에 기여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들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완수하고 우리 나라에 행복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전세계 피압박 인민들이 종국적으로 해방되는 그날까지 과거에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다.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집단주의

조　　면

최근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과 함께 도덕 교양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에서 기본 원칙은 집단주의이다.

집단주의—이것은 로동 계급의 련대성의 사상이며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자각적으로 복종시키며 서로 돕고 이끄는 생활 태도이다.

집단주의 사상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처지와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로동 계급은 피착취 대중을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여야 한다. 적수 공권의 로동 계급은 오직 단결함으로써만 자본의 철쇄를 끊어 버리고 자기의 이 숭고한 력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단결의 기초에는 로동 계급의 집단주의적 생활 기풍이 놓여 있다.

이미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선진 분자들은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집단주의 원칙에서 개인의 리익을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자각적으로 복종시켰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에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러한 공산주의적 도덕의 전통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어떤 어렵고 곤난한 조건 하에서도 동지들과 자기의 대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

오늘 우리는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고상한 도덕의 전통을 계승하며 본 받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인 지배가 확립되고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집단주의는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생활 기풍으로 되여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리익, 집단의 리익, 개인의 리익은 하나로 통일되여 있다. 우리 제도 밑에서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일이자 나라의 일이고 동지들과 집단을 위한 일로 된다. 집단을 위한 헌신성은 곧 자신을 위한, 동시에 집단과 사회를 위한 영예로운 복무로 된다. 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헌신성은 집단과 사회의 응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감사와 찬양을 받는다.

또한 집단주의 하에서만 매 개인은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진실로 향유하며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직 집단적 관계 속에서만 개인은 자기의 소질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그에게 주는 수단을 획득하며, 따라서 오직 집단적 관계 속에서만 인격적 자유가 가능하다.》(맑스, 엥겔

스, 《독일 이데올로기》 80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비로소 사회적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옳은 결합이 보장되며 개인의 참된 복리와 개성의 전면적 발전이 보장된다.

사람들은 공산주의 교양이 강화됨에 따라 집단과 개인의 리해 관계와 발전의 이러한 통일성을 더욱더 자각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 도덕은 더욱 지배적인 생활 원칙으로 확립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수천 수만의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하며 배우며 사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이 활짝 꽃피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집단주의 교양은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게 하며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집단주의 교양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더 진정한 동지애로 결합되게 한다.

매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도 집단주의 교양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 시기 집단주의 교양은, 오직 자기만이 잘 입고 잘 먹고 평안히 살려는 부르죠아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폭로 분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그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로동 계급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최고 목적을 위하여 언제나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자각적으로 복종시킨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을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데로 이끌어 감으로써 혁명 수행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은 개인의 리익을 사회와 집단의 리익과 대립시키면서 《사회주의 최고 목적이 곧 사람들의 개인 행복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사람들의 개인 행복을 그 어떤 〈최고 목적〉에로 복종시키지 못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개인 리기주의를 조장하며 나아가서 자본주의를 부활시키며 공산주의와는 점점 더 거리를 멀게 할 뿐이다. 유고슬라비야의 현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성과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그들을 호상 협조하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 *

집단주의는 자기의 조직과 집단, 혁명 동지를 열렬히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는 데

서 표현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집단주의는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동지를 사랑하며 인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자기 집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교양에서 교육 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혁명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자기의 집단과 조직이며 혁명 동지이다. 조직과 집단은 실로 혁명의 요람이다. 여기를 떠나서는 혁명 활동도, 생활도 있을 수 없다. 오직 조직에 의거하여서만 로동 계급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혁명 투쟁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한 혁명 동지들보다 더 친근한 사람은 없으며, 이 혁명 동지들의 집단은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은 어떠한 어려운 역경에서도 집단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바쳤으며 자기의 혁명 동지를 위하여 적의 총탄을 막아 섰고 단두대 앞에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당의 령도 하에 오늘 수천 수만의 천리마 기수들은 혁명 선렬들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집단과 동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배려하는 숭고한 품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길 확실 동무는 뒤떨어진 작업반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낮은 보수도,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무려 3 개의 작업반에 내려 가 매 작업반을 붉은 집단으로 묶어 세웠다.

리 홍렬 동무는, 원쑤의 만행으로 하여 흩어진 한 혁명 동지의 자매를 찾아 주기 위해 수백 통의 편지를 도처에 띄웠고, 170 여 개의 인민반을 찾아 끝내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였으며 자기 집까지 내여 주는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를 발휘하였다. 가진의 영웅들은 불의의 태풍에 조난 당한 혁명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령하 40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험악한 파도 우에서 연 사흘이나 표류하면서도 끝내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는 인간 관계에서까지도 《리윤과 계산》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앞자리에 내세우며 집단의 성과와 복리에서 개인의 행복을 찾는 집단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게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자기 계급, 자기 인민에 대한 이러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 도덕 풍모를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집단과 혁명 동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철저한 계급적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원쑤를 증오할수록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 때문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과 동지를 열렬히 사랑하게 하자면 높은 문화 의식과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도록 근로자들을 부단히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지와 집단에 대한 사랑은 공산주의적 의리, 인간성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인도주의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배려, 사랑, 우

애의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이렇게 교양될 때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처자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우들을, 부락에서는 부락 인민을 사랑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될 때만이 사람들 호상간은 혁명 동지로서 굳게 단합되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수 있다.

집단주의는 자기 집단, 자기 인민의 살림살이를 잘 꾸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데서 표현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들이 먹고 쓰고 입는 문제를 자체 힘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토대가 확고히 축성되였다.

실로 우리의 살림살이는 과거에 비할 바 없이 몇 배, 몇 십 배로 장성되였다. 도처에 강력한 국영 공장, 기업소들이 있으며 군마다 10 여 개의 지방 산업 기업소들이 있다. 또한 풍부한 자원을 가진 산과 바다, 전야와 하천이 있다.

이 모든 자원은 전체 인민을 위한 재산이며 우리 집단과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재산이다. 이 공동 재산은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잘 살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다.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리고 관리하며 효과 있게 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집단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중요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가 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열렬한 애착심으로 나라의 모든 자원을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 재산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값 있게 쓸 때 나라의 경제력은 더욱더 발휘될 것이며 우리의 생활은 더 풍부해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 재산과 공동 재산을 주인답게 잘 관리하지 못 하고 세간살이를 잘 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결코 빨리 넉넉해질 수 없다. 이것은 국가와 집단의 리익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리익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및 공동 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알뜰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충실한 복무의 표현이며 집단주의의 표현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살림살이를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늘구는 데 리용할 수 있는 예비와 자원이 풍부히 있다. 문제는 창성, 벽동의 당원들과 인민들처럼 나라의 살림살이를 늘구기 위해 어떻게 관심을 높이며 이악하게 달라 붙는가에 있다.

여기에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것은 금년도 10 대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과 인민을 위하여 기술 혁신을 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집단주의는 매 개인이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회와 사람들 앞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표현된다.

집단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집단 앞에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행위를 집단과 사회의 리익의 견지에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매 개인에게 위임된 임무는 우리 당의 혁명 임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투쟁 과업의 한 부문이며 그의 한 개 고리이다.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이 곧 전체 집단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일'군들이 자기 맡은 임무 수행에서 책임성을 높이며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달라 붙는 것이 집단주의의 발현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맡은 혁명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혁명 과업과 집단의 리익에 관심을 돌리는 것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만일 자기 맡은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작업반, 다른 직장, 다른 공장의 사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주의자가 아니다.

더우기 오늘 인민 경제의 규모가 매우 방대해지고 경제 부문 호상간, 기업소 간의 련계가 아주 밀접해지고 협동 생산이 강화된 조건 하에서 호상 다른 공장, 기업소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인민 경제 전반에 커다란 지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특히 지도 일'군들이 본위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며 직장 호상간, 공장 호상간, 경제 부문 호상간에 련계를 더욱 강화하고 서로 도우면서 협동 생산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단주의는 공중 도덕과 공중 질서에 대한 자각적 태도에서 표현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공중 도덕과 공중 질서에서 자각적인 사람들이다. 공중 도덕과 공중 질서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자각적인 태도는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요구하는 집단주의 도덕의 발현인 것이다.

집단의 힘이 개인의 힘보다 몇 배로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공중 도덕, 공중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킨다.

공중 도덕에서는 우선 집단의 규률,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사회는 조직된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 생활에서 자각적인 규률과 질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조직된 사회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사회 생활에서 커다란 장애로 된다. 그러므로 온갖 자유주의, 무절서한 현상과는 무자비한 사상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례의 도덕과 의모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근로자, 공산주의자들은 생활에서 검박하고 소박하며, 웃사람과 혁명 동지를 존경하고 언행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 민족은 예로부터 례의 범절이 밝고 미풍 량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긍정적 전통을 계승하여 공산주의자다운 도덕 풍모를 가져야 한다.

* *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 사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철저한 조직적, 교양적 대책들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맑스-레닌주의 일반 원리와 우리 당 정책에 대한 부단한 학습과 계급 교양, 도덕 교양을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집단주의 교양에서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도처에서는 매일 매 시각 감격과 흥분 없이는 볼 수 없는 숭고한 집단주의적 품성들이 수다히 나타난다.

이것으로 부단히 교양할 때 사람들은 그들처럼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려는 의지, 흥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집단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 실천을 통한 교양이다. 이것은 거대한 생활력을 낳는다. 매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집단, 자기 조직으로부터 임무를 분공 받고 온갖 정열과 지혜를 다하여 그것을 성과 있게 실행할 때, 그 결과가 집단과 사회에 기여되는 것을 체험할 때 그 이상 영예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더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투쟁하려는 집단주의적 사상 감정은 더욱 풍부하여지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타산

전 웅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는 현 시기 간부들과 당원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잘, 더 훌륭히 꾸려 나갈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당 정책을 관철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 나감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과 이미 만들어 놓은 물질적 부를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해 빛이 나도록 리용할 수 있으며 조국을 더한층 문명하고 부유한 나라로 전변시킬 수 있다.

경제 사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는 것은 결국 타산을 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오늘 당과 혁명에 대한 간부들과 당원들의 충실성은 주요하게 자기들의 사업에서 타산을 과학적으로 하여 나라의 온갖 자원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 *

과학적인 타산—이것은 사회주의의 기본 요구의 하나이다.

물론 개인 경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소상품 생산자들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적 자본가들에게도 타산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고 생산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에서 경제적 타산은 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또 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에 의한 경리 운영 상의 타산은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투기를 동반하며 사회적 규모에서 막대한 랑비를 가져 온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타산에 대한 문제는 이와 전혀 다르게 제기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생산적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는 고도로 조직된 대규모 경리이다. 이러한 대규모적 경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높은 계획성과 조직성이 요구된다. 바로 타산은 사회주의의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 하에서 타산은 계획 작성의 전제로 되며, 내부 예비 동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되며, 자원의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리용의 방도로 된다.

사회주의는 이와 같이 타산을 그의 기본 요구의 하나로 제기하며 또한 오직 사회주의만이 비로소 처음으로 전 사회적 규모에서 타산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의하여 자본주의 하에서와 같은 사회적 로동과 자원의 막대한 랑비가 근절되게 되며 사회적 생산의 합리적인 조직이 이루어진다. 전 사회적 규모에서의 타산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주요한 우월성이다.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사회주의의 이 요구를 실현하며 또 그 우월성을 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레닌은 10월 혁명이 승리한 이후 타산에 대한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 앞에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의 하나이며, 따라서 주권을 잡은 프로레타리아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무가적 방법으로 자기의 리익을 타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이것은 계산이다.》(전집 제 26 권, 368 페지) 《이것은 벌써 〈혁명 일반〉의 과업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적 과업, 즉 근로자들과 빈민이 반드시 자본주의에 대하여 결정적 전투를 하여야 할 그러한 과업인 것이다.》(전집 제 27 권, 505 페지)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부터 지도 일'군들이 사회주의 하에서 이와 같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타산을 잘 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도록 항상 강조하여 왔다.

특히 현 시기 타산에 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이 가일층 심화 발전된 사정과 관련된다.

정권을 쟁취한 로동 계급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더우기 우리 인민은 과거 장구한 기간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살아 온 관계로 경리를 타산하고 조직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으며 또 배울 수도 없었다. 나라가 없고 압박 받으며 빈궁하게 살다 나니 우리 인민들 속에는 고용살이적 근성, 되는 대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살며 물건을 망탕 다루는 습관이 생겼었다. 오늘에 와서도 완전히 가시여지지 않고 경제 관리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 이러한 낡은 잔재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된다.

사실 상 지난 기간 경제를 복구하고 개건하기 시작하던 첫 시기까지에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 때까지만 하여도 경제 건설이 급속히 진척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도 없이 건설에 착수하거나 또 미처 경제적 효과성도 따져 보지 못하고 생산을 조직하는 현상도 있었으며, 이것은 당시 조건에서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지금 사정은 그 때와 전혀 다르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기술 장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경제의 규모는 비상히 확대되였으며 기업소 호상간, 그 내부 단위들 간의 생산적 련계가 전례 없이 복잡하여졌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과 기술 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예비를 동원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졌으며 또한 이제 와서는 비록 1%의 예비를

동원하는 것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였다.

만일 해마다 강재 소비를 1%씩만 절약한다면 7 개년 계획 기간 내에 약 4만 8,000 대의 뜨락또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건설비를 해마다 1%씩만 절약한다면 7 년 동안에 8만 세대 이상의 문화 주택을 더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적당히》 일하는 낡은 생활의 잔재들을 결정적으로 청산하고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짜고 들어 경리 운영 사업을 조직한다면 방대한 예비를 동원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관리 운영 사업을 잘 한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기계와 공장 면적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고 로동 생산 능률도 더 높일 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더 빨리 개선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더한층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오늘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는 데서 생산의 앙양을 위한 커다란 예비를 보고 있다.》 (《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16 폐지)

오늘 우리 나라에서 타산을 세밀히 하고 관리 운영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데 대한 문제는 완전히 성숙된 요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각급 단위에서의 경제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 관리 운영 체계의 부단한 완성, 일'군들의 경리 운영 방법의 개선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당은 이미 지난 기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상응한 가장 합리적인 경제 지도 체계인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으며 경제 지도에서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공장 당 위원회들의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전면적 확립과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는 경제 관리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지도 일'군들과 당원들이 새로운 사업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게 어떻게 사회주의 경리 운영 사업을 조직하며 타산을 과학적으로 하는가 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오늘 우리는 타산을 잘 하여 경리 운영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예비를 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7 개년 계획의 보람찬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 *

현 시기 타산의 중심은 무엇보다 우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데로 돌려져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하는 것은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며 매개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몫을 증가시켜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우리 당은 최근 1~2 년 내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제고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따라서 타산의 중심도 응당 여기에 돌려져야 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을 잘 하였는가, 못 하였는가 하는 것도 1 인당 생산액을 어떻게 높였는가에 따라 평가되여야 한다.

오늘 공장, 기업소 생산의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모두 결과적으로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기업소들에서 생산 및 로동 조직의 개선, 설비 리용률의 제고, 대용 자재와 폐설물의 합리적 리용, 자재 소비 기준의 저하,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류동 자금 회전률의 촉진 등 경영 활동의 성과는 모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선 생산 및 로동 조직을 보자. 그의 개선은 생산 주기를 단축하며 로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케 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며 나아가서 종업원 수가 동일한 조건에서도 기업소 전체의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도 제고시키게 된다.

지난 기간 흑룡 탄광에서는 로동일 실태를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전체 종업원들의 성별, 체질, 년령, 기능, 성격 등에 대하여 면밀히 료해한 기초우에서 로력 조직을 개편하여 직접공의 비률을 27%로부터 31.6%로 높이였다. 한편 생산 공정과 로력 조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로력 류동을 방지하고 로동자들을 고착시켰다. 이것은 이 탄광의 로동 생산 능률 제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탄광에서는 167 명의 로력을 인민 경제의 다른 부문에 돌리고도 지난해보다 113%로 장성된 금년 1.4 분기 석탄 생산 계획을 107.8%로 넘쳐 실행하였으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지난해보다 118%나 제고시켰다.

다른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자. 평양시 지방 산업 총국 산하 재침 공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30 여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바늘 생산이 제품별로 전문화된 작업반들이 조직되여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편하고 있다. 이것은 얼핏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대략 종업원 수의 5%에 해당하는 로력 예비를 동원할 수 있으며 설비의 집중적 리용을 보장하면서 막대한 량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것은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지도 일'군들이 생산 및 로동 조직을 비롯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고리들에서 비록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용 자재와 폐설물의 리용, 자재 소비 기준의 저하,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등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매개 제품에 포함되는 비용을 축감시킴으

로써 원가를 저하시키며 기업소의 자금을 절약하고 리윤을 증대시킨다. 이때 기업소는 절약된 자금과 기업소의 소득을 생산의 확대나 기술 혁신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례컨대 평양시 지방 산업 총국 산하 보통강 건재 공장에서 로끄 생산에 대용 자재를 리용하여 금년 1.4 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원가를 11.7%나 저하시켰다. 이것은 그 만한 량의 자금을 적게 들이고도 동일한 량의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 공장에서 절약된 자금과 증대된 수익을 잘 리용한다면 더 많은 량의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시키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런 만큼 경제 지도 일'군들은 매개 제품의 생산에 지출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타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이 생산의 매개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사업이 개선되도록 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개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업소들에서 지방 원료나 폐설물을 리용하는 경우에 사전에 그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조급하게 어떠한 제품의 생산에 착수한다면 충분한 성과를 걷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원료와 자재를 리용할 때에도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하는가에 따라 그의 경제적 효과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항상 사업의 모든 결과가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미리 따져 보고 효과적인 경우에 조직하는 것이 타산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여야 한다.

1 인당 생산액은 더 나아가서 전 사회적 견지에서, 국가적 립장에서 고려되고 타산되여야 한다. 그것은 사회주의 경리 운영의 최종적인 결과가 결국은 사회적 로동 지출의 절약을 보장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리 운영에서 사회적 로동의 절약을 가져 오지 않는 기업 활동의 성과란 생각할 수 없다.

국가적 립장에 서서 타산한다는 것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사업 결과가 다른 부문의 생산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로동과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도록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품종별, 지표별 계획을 엄격히 수행하고 협동 생산 제품을 적시적으로 보장하며 대용 자재와 지방 원료 등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원가를 저하하면서 1 인당 생산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제정된 품종별, 지표별 계획을 위반하고 품이 적게 들며 금액이 높은 제품만을 생산하거나, 자재를 절약 못 하고 원 단위 소비 기준을 초과하며 원가를 제고하면서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지도 일'군들은 자기의 작업반, 직장, 기업소 범위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전 사회적으로 보아도 1 인당 생산액이 제고되도록 경리를 타산하는 데 항상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 *

경제 지도 일'군들이 타산을 잘 할 데 대한 문제는 경리 운영 사업에서 주먹구구식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사업에서의 타산도 그 자체가 과학적이여야 하며 경영 활동에 관한 새로운 과학의 성과들이 부단히 도입 리용되여야 한다.

레닌은 이미 오래 전에 경제 사업에서 과학의 의의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그는 경제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과학을 존중히 할 줄 알아야 하며 상식가들과 관료배들의 <공산주의적> 자만을 배격해야 하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천에 의거하면서 체계 있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전집 제 32 권, 171 페지)

경리 운영 사업, 타산에서 과학의 의의는 경제가 째이고 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제고된다.

물론 현 시기 우리 나라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는 지도 일'군들이 경험적인 방법으로라도 조금만 생각하고 타산하면 비교적 손쉽게 얻어 낼 수 있는 예비들이 적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건설 부문이나 지방 산업 공장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오늘 일부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는 고자재와 폐설물을 회수 리용하고 기준 이상으로 자재를 소비하는 현상을 근절하며, 재정 규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480 분 로동 시간을 완전히 리용케 하며, 상품 보관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그것만으로써도 적지 않은 예비를 얻어 낼 수 있다. 평양 제침 공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폐설물로 나오는 강철편들이 회수 리용되지 않고 구내 한 구석에 쌓여 녹쓸고 있었으며, 평양시 지방 산업 총국 산하 공장들의 기업 활동을 본다면 조금만 관심을 돌려도 나지 않을 수 있는 《시효 경과 채권 손실》과 같은 것이 아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공장 관리 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여 이러한 손실들을 근절하고 폐설물들을 회수 리용하였다면 기업소의 수익성이 적지 않게 높아졌을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는 그렇게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예비가 많지 않다. 오직 과학적이며 세밀한 타산,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들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생산 내부에 잠재하는 예비와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탐구 동원 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타산을 하는 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며, 경리 운영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치적 계산에 의거하는 것이며, 경제 활동에 수리 운영학을 리용하는 것 등이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력량과 해야 할 사업들을 정확히 장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경제 사업의 성과를 위한 주요한 전제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자연과의 투쟁이거나 혁명 투쟁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투쟁에서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는 것은 승리를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선집 제 6 권, 417 페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함이 없이는 생산의 제 요인들과 경리 운영의 매 고리들을 서로 련결시키고 자기의 력량과 해야 할 사업 대상을 대비하여 옳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생산 및 로동 조직들을 개선할 수 없다.

평양 종합 기계 공장의 지난해 계획 작성 경험은 이에 있어서 매우 교훈적이다. 이 공장에서는 작년에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생산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타산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어떤 지표는 도면과 일부 자재도 없이 그리고 위전기 같은 지표는 수요자도 모르면서 계획을 작성 시달하였다. 그러하였던 결과는 지난해 총 생산액 계획 지표와 현물 지표는 변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관리 일'군들은 항상 원료와 자재의 확보 정형, 설비의 능력, 로동자, 기술자들의 력량, 공장의 자금 동태 등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매개 작업반과 직장, 각 생산 공정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에 리용될 수 있는 원천과 가능성들을 적극 찾아 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 동원하고 사업을 자기의 구체적 형편에 맞게 조직하는 이 모든 것이 궁극에 가서는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게 되여야 하는 만큼 관리 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의 경제적 효과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가치적 계산을 잘 하여야 하며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기업소의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 및 생산의 결과가 화폐적 형태를 띠게 되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경제 사업의 성과를 기업소의 일체 비용 즉 지출을 수입과 대비함으로써 알 수 있으며 매개 생산 방법들의 경제적 효과성도 우선 가치적 계산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령 국가 농목장에서 어떤 방법에 의한 생산이 육류 1 키로그람당 원가를 최소로 감소시키는가, 혹은 사료 1 단위당 육류 생산량을 최대로 증대시키는가를 알려면 가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련포 목장의 경험은 사료량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현재의 돼지 두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돼지에 사료 급여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료 급여량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육류 증체량과 사료의 가격들을 서로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한가가 계산되여야 할 것이다.

가치적 계산이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써는 어느 것이 보다 렴가한가를 알 수 있을 뿐이고 경영 조직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들을 곧 찾아낼 수는 없다.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경영 조직 방안들을 찾아 내기 위하여서는 수리 운영학의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리 운영학의 방법들은 공장, 기업소나 국가 및 협동 농장들에서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게 생산 및 로동 조직을 극히 합리화할 수 있게 하며 각종 시설, 작업장, 자재 창고, 탈곡장, 축사, 모'자리판의 위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각종 시설의 위치나 선로의 배치 등을 옳게 하는 것도 자금과 자재를 절약하고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 황해남도 송배전부 일'군들은 선로 배치를 개선함으로써 무려 수십만 메터의 각종 전선을 동원할 내부 예비를 얻어 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 일'군들이 타산을 과학적으로 하고 경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자면 공장, 기업소의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알아야 하며 높은 정치적 열성을 발휘하여 타산을 과학적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리 운영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생산자 대중을 이 사업에 참가시키며 그들과 일상적으로 상론하여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위대한 힘을 남김 없이 발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이야 말로 직접 생산을 진행하면서 매일 매 시간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원가를 저하시킬 데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야 말로 경리 운영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 되여야 할 공장, 기업소, 직장, 작업반들의 구체적인 실정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경험은 이들을 타산하는 사업에 참가시킬 때 생산 내부의 세부분에 걸치는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타산하여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로력과 자재를 적극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대중을 기업 관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지도 일'군들은 생산자 대중의 위대한 힘을 타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과 상시적으로 토론하며 내부 채산제를 강화하는 등 그들을 타산하는 사업에 인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 일'군들이 경리 운영에서 타산을 잘 하고 생산자 대중이 이 사업에 광범하게 참가하게 될 때 우리의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는 방대한 예비들이 솟아 날 것이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결정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진실한 형상, 풍부한 서정

리 상 태

오늘 우리 문학 예술 앞에는 형상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절실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형상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우선 문학 예술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특히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온다.

문학 예술은 생활을 형상적 형식으로 반영하니 만큼 그의 인식 교양적 기능은 높은 형상성을 통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형상성을 부단히 높여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자체의 요구로 된다.

그러나 형상성을 높이는 문제는 안일한 창작 태도로써는 해결될 수 없다. 고상한 사상적 내용을 표현하는 데 적응한 예술적 형식을 찾아 내기 위해 노력하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통일시킬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작가의 당적 안목,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더불어 형상 창조의 다양한 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할 때만이 《예술성으로 더욱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김 일성)을 가진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

현 시기 우리 문학 예술에서 형상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이와 같은 일반적 요구에만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인민의 정신 도덕적 풍모가 비상히 풍부해지고 그들의 미학적 수준이 비할 바 없이 높아진 데 있다. 우리 인민의 정신 도덕적 풍모와 문화적 소양의 풍부화는 문학 예술의 질을 한층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시대의 현실을 더욱 심각하고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들이 더 많이 창조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답하는 창작적 과업의 하나는 문학 예술의 형상성을 보다 제고하는 문제이다.

형상성은 생활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 문학 예술의 본성이다. 형상성의 우렬은 곧 예술성의 우렬을 의미하며 그것은 문학 예술 작품이 얼마나 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가 문학 예술 작품을 읽거나 감상할 때 심히 감동되면서 기뻐하고 증오하고 사랑하며 규탄하며 투지와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심오한 내용과 고상한 사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학적인 공감은 생활의 생생하고 진실한 반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소설 《석개울의 새 봄》과 《전사들》, 연극 《붉은 선동원》과 《해바라기》, 《태양의 딸》은 독자 관람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에서 생활의 진실과 심원한 사상이 얼마나 명료하고도 생생한 화폭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석개울의 새 봄》(제 1 부)에서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개조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계급 투쟁을 구체적인 사건, 개성적인 성격들의 창조를 통하여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 고향의 너그러운 모습을 달래강'가에 안개 흐르는 아름다운 화폭 속에서 보며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성을 혁명에 바치고 있으며 개인적 생활의 슬픔을 박차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투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새 형의 투사-애국자의 모습을 창혁의 형상에서 찾아 본다.

시대의 본질, 생활의 특징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화폭—바로 이것이 형상이다.

시대의 목소리, 작가의 사상이 독자들에게 접수되도록 하며 그들에게 커다란 미학적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또한 형상력인 것이다. 구체적인 형상적 화폭의 창조 없이 문학 예술에서는 그 어떠한 사상도 표현할 수 없다. 참된 형상의 힘만이 위대한 사상에 날개를 펼쳐 줄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문학 예술의 이러한 특징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 작가, 예술가들은 조선 인민의 애국심을 표현함에 있어 그 어떠한 추상적인 구호를 라렬할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며 형상적인 감정, 사건, 인물, 사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작품에 표현된 애국심이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3 권, 1954 년 판, 240 페지)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바로 이것이 형상성의 본질이다. 즉 문학 예술에서의 형상성의 본질은 구체성, 직관성을 가진다는 의미만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성과 진실성의 통일에 있다. 그것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개성적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에 대한 자연주의적 복사는 사실주의적 일반화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문학 예술에서의 회화적 구체성은 생활적 진실성에 토대하여야 한다. 생활의 본질을 생동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회화적 구체성만이 진실한 예술적 형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형상성의 본질을 단순히 구체성과 직관성에만 귀착시키고 있다. 만약 우리가 형상성의 본질을 이렇게만 리해한다면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며 내용과 형식의 통일에 대한 원칙을 리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형상성에 대한 이러한 리해는 어떤 사상을 표현하였든지, 어떤 생활적 내용을 표현하였든지 간에 회화적인 구체성만 가지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상의 본질을 순수 형식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는 유해로운 견해이다.

형상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성격을 보다 생동하고 심오하게,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창조하는 것이다.

성격은 형상의 핵이라고 말한다. 왜냐 하면 인간과 인간 생활을 기본으로 묘사하는 문학 예술에서의 형상은 결국 인간의 형상이 그 중심으로 되여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성격이 형상의 세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 예술에서의 성격은 생활을 형상적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그처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그 자체가 곧 문학 예술 창조의 목적과 과업으로는 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 창조의 목적과 과업은 어디까지나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높은 계급적 자각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문학 예술로 하여금 사상 투쟁에서 예리한 무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성격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립장에서 성격을 리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편향으로 떨어질 수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형상성을 사상성과 분리하면서 순수한 형상을 운운하며 성격을 다면적으로 생동하게 창조한다는 구실 하에 인간의 모든 속성, 지어는 성 생활까지도 묘사하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때에 성격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는 것은 리론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문학 예술에서의 성격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는 결국에 있어서 인간을 사회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인간으로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자연주의자들의 목소리와 통하고 있다.

성격의 생동성, 심오성, 다면성에 대한 요구는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서는 언제나 사회적 인간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성격을 생동하고도 심오하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창조되는 중요한 계기들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 복잡하고도 지루한 사건은 있으나 성격이 모호하고 덜 선명한 것은 성격적 특징들이 부각될 수 있는 계기들을 정확히 설정하지 못 하고 사건들을 이러저러하게 라렬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편 소설 《폭풍의 력사》와 《청천강》이 독자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사건을 위한 사건,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이것은 문학적 사건, 문학적 이야기와는 인연이 없다. 문학 예술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흥미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라 할지라도 성격을 창조하는 데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 한다면 그것은 문학적 사건이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도, 하나의 이야기도 시대의 본질과 생활의 의의를 천명하는 데 이바지하는 경우에만 의의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흥미 있는 사건도 성격화되는 경우에만이 미학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중편 소설 《전사들》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인민군 전사들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바로 각이한 인간들의 생동하고도 심오한 성격 창조를 통하여 보여 주었기 때문에 높은 사상 미학적 가치를 획득하였다.

이 소설의 중요한 예술적 특성의 하나는 평범한 사건 속에서 많은 인물들의 성격이 매우 생동하게 부각된 데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전투를 취급한 작품들에서 흔히 발로될 수 있는 미담식, 이야기 전달식 경향을 극복하고 영웅적 투쟁 모습을 인민군 전사들의 사상과 감정, 그들의 사고와 심리의 개방을 통하여, 생동한 인간 성격을 통하여 보여 주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갈등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심화시켜 해결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사소한 사건이나 세부 묘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격 형성의 중요한 계기들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기본 갈등은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인민군 전사들의 영웅적 투쟁이다. 이 기본 갈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략상 중요 지점인 월하봉을 단 한 개 중대의 력량으로써 적 두 개 련대의 공격 앞에서 견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 싸고 각양한 성격 충돌을 설정하였다.

주인공 박 대우 중대장의 성격은 우선 적들을 격멸 소탕하는 전투 정황 속에서, 전사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에 대한 비타협적인 증오심으로 끓고 있는 련대장 강 표와의 관계에서, 교범과 규정에 의해서만 사고하기에 습관이 되여 새것을 볼 줄 모르는 참모장 구 본수와의 성격 충돌에서, 또한 자기 의무 수행에 충실한 구 혜경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중대 전사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성격 형성의 계기들을 통하여 대우의 성격적 특징, 즉 조국에 대한, 혁명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자기 희생성과 대담성이 결합된 새 형의 투사다운 열렬한 성격이 마치 뼈점을 찍은 글'자와 같이 뚜렷이 안겨 온다.

또한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성격 형성에 효과적으로 복무한 실례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례를 들면 꾀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 식불 박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최 두명 전사가 가지고 다니던 꾀아리를(그는 이미 전사하였다) 그의 뜻을 이어 포탄 퍼붓는 고지우에 이식한다. 이 이야기는 최 두명 전사의 리상과 갸륵한 소행에 대한 단순한 추억으로 묘사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싸우는 대우와 그의 전사들의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을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대한 힘의 원천을 발견하는 강 표 련대장의 고상한 품성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의 《신경 쇠약증》이라고 간주하는 구 본수 참모장의 실무적 성격을 발견한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건, 그 이야기의 의의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사상과 감정을 말해 주고 있으며 그들의 성격의 중요한 특징들을 표현해 주는 이러한 묘사는 확실히 예술적 탐구의 훌륭한 결실인 것이다.

성격을 심오하게 천명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심리 묘사이다. 심리 묘사를 통하여 주인공이 무엇을 생각하며 왜 고민하는가 하는 심리의 움직임을 보여 주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움직임의 개방은 주인공의 정신 세계의 내부를 보다 깊이 천명할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심리 묘사란 우리 시대 인간의 정신 세계를 보다 깊이 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 만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인공이 사고하며 느끼며 때로는 고민하는 사상 감정의 움직임, 심리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를 의미한다.

례를 들어 《시련 속에서》의 심리 묘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T 번호 특수

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사색하고 고민하는 태운의 심리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였으며, 《붉은 선동원》에서는 자기의 헌신적 노력과 설복으로 부정 인물들을 감화 교양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사색하며 고민하는 선자의 심리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심리 묘사의 수법이 원만하게 적용되지 못 하고 있다. 심리 묘사에서 발생되고 있는 편향의 하나는 심리 묘사에 대한 매우 소심한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심리 묘사에서 일반화의 의의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다.

특히 심리 묘사에서 일반화의 의의를 경시하는 현상은 보통 주인공의 일신 상의 《고민》을 묘사하는 데서 자주 발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신 상의 문제가 심리 묘사의 대상 밖에 놓인다고는 물론 말할 수 없다. 《시련 속에서》의 태운과 선주, 《전사들》에서 대우와 혜경, 《석개울의 새 봄》에서 창혁과 룡이와의 관계 같은 애정상의 심리적 갈등도 응당 묘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신 상의 심리적 갈등이 일정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의 고상한 정신 세계를 밝혀 주는 데 복무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격을 심오하게 다각적으로 천명하는 데 진정으로 기여할 것이며 형상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만약 일신상의 심리적 갈등이 순수 개인적인 고민, 사랑 등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 아무런 일반적인 사회적 의의와 교훈을 주지 못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에서의 전형화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 문학 예술은 성격 창조에서 발로되는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고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정신 세계를 대담하게 개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 요구의 수준에서 진실한 예술적 형상을 창조해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진실하고 참된 형상을 창조해 낸 문학 예술 작품만이 높은 서정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풍부한 서정성으로 일관된 작품일수록 독자들의 심장을 더욱 그러잡을 수 있다.

문학 예술에서의 서정성이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서사성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이야기적이고 사건적인 문학 예술적 속성과는 반대로 주관화된 감정이 전면에 나선 문학 예술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 서정성은 주로 서정시를 념두에 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서정성이란 서사성과 대비되는 개념만은 아니다. 그것은 문학 예술 작품이 높은 형상성을 획득함으로써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 줄 수 있는 문학 예술의 일반적 특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학 예술에서의 서정성은 시대적 및 력사적 성격을 띠며 또한 그것은 작가 예술가들의 미학적 리상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과거 봉건 지배 계급에 복무한 유교 문학이나 부르죠아 퇴폐 문학은 목가적이고 안온한 것 속에서, 영탄과 애수, 렵기적인 것 속에서 서정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의 공허한 생활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것이였으며 자기들의 방종한 생활을 영원한 것으로 노래하며 인민 대중의 자각과 투쟁을 마비시키며 억제하려는 것이였다.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의 서정성은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인 서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시대의 서정은 어디까지나 선행 시기 진보적 문학 예술에서 발현된 민족적 정서에 토대하면서 혁명의 시대, 천리마의 시대의 생활 속에서 발현되는 서정인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지배 계급의 이중삼중의 가혹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슬기롭고 아름다운 정신 도덕적 풍모를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밝고 행복한 날을 열렬히 념원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의 바탕에는 그 어떤 감상적인 애수가 아니라 밝고 슬기로운 락천성이 놓여 있다.

우리 인민의 밝고 슬기로운 락천적인 정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수 많은 고전 작가들의 작품들과 민요들에 력력히 반영되여 있다.

봉건적인 질곡과 탐관오리들의 횡포한 탄압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변함 없는 사랑와 절개를 지켜 나가는 춘향의 형상에서는 얼마나 밝고 깨끗하며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가 파동치고 있는가. 또한 《홍길동전》, 《허생전》, 《심청전》, 《흥보전》 등에는 계급 사회의 암담한 생활 속에서도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 인민의 락천적인 정서가 얼마나 힘 있게 울려 오고 있는가.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은 이러한 밝고 슬기로운 락천적인 민족적 정서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 명랑하고 락천적이면서도 전투적인 생활 속에서 서정을 찾고 있다.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전체 인민이 천리마의 진군을 계속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고 있는 생활 속에서는 이러한 락천적이며 전투적인 서정은 필연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 투쟁을 반영한 소설 《불타는 섬》, 《상급 전화수》, 《전사들》을 비롯한 수 많은 작품들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 희망도 청춘도 서슴 없이 바치는 데서 인간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죽음을 박차고 나가는 데서 미래의 조국을 그리는 리 대훈, 리 남길, 박 대우의 형상들에서는 얼마나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가. 또한 소설 《길동무들》, 영화 《갈매기호 청년들》에서는 우리 시대 청년의 공상과 꿈이 어떻게 현실로 꽃피여 가는가 하는 것을 열마나 명랑하고 락천적인 정서로 묘사하고 있는가.

《길동무들》의 주인공 명숙은 어느 산간 벽지에서 고중을 갓 졸업한 애숭이 처녀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지극하였다. 그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는 소박한 이 애국적 감정은 커다란 꿈을 꾸게 하였다—이 산간 벽지의 사람, 내 고향 사람들도 벌방 사람들과 같이 물'고기도 먹으면서 더 잘 살게 할 수 없겠는가?고. 이 처녀의 꿈은 처음에 이러 저러한 장애로 인하여 피여나지 못하였으나 당의 따뜻한 해'빛과 자신의 확신성 있는 꾸준한 노력으로 인하여 드디여 꽃피여 난다. 이와 같이 소설은 청춘의 희망과 정열로 자기 고향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십

장을 불태우는 소박하나 정열적인 우리 시대 청년의 형상을 통하여 공산주의 미래에로 달려 나가는 천리마 시대의 위대한 호흡과 맥박을 감명 깊이 천명하였다.

희망을 자기의 모든 지혜와 노력으로 실현하는 전투적인 락천성—이것이 천리마 시대 인간의 감정이며 정서이다.

이러한 정서의 진실한 구현이 없이 천리마 현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생활 자체의 정서이며 우리 문학 예술의 풍부한 서정성의 기초로 되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 예술은 이러한 락천적이고도 전투적이며 맑은 서정이 흘러 넘치는 작품들을 전면적으로 창조해 내야 한다.

우리의 일부 작품들이 따분하고 메마른 중요한 원인은 우리 생활에 대한 작가 예술가들의 뜨거운 공감과 심장을 불태우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활에 대한 풍부한 체험을 가지고 시대의 전변, 시대의 아름다움을 진정 심장으로 불태운다면 그는 이야기 전달식 작품이 아니라 생활과 사상, 감정, 정서가 맥박치는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 작품을 창조해 낼 것이다.

동시에 서정이 풍만한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단조롭게 취급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말하자면 인간을 생산과 건설장에서만 묘사하여 생산적 과정의 묘사에 용해시키는 도식주의적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륜리 도덕적 주제의 작품들도 응당 활발하게 창조해야 할 것이다. 확실히 일부 작가들은 이에 대하여 소심해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리상을 빛내 주며 우리의 투쟁을 고무하고 추동해 주는 진정한 애정에 대하여 대담하게 묘사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진실한 사랑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도식이나 규칙을 작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현실 반영의 무한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작가들에게 제공한다.

서정적 스찔을 탐색하는 것은 랑만으로 약동하는 우리 현실을 반영함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천 년을 산, 만 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아—하—야—

이것은 조 명희의 소설 《락동강》에서 주인공 성운이가 보석으로 출옥되여 락동강을 건느면서 부른 노래이다. 이 락동강에 관한 민요는 이 소설의 서정적 색채를 더욱 부각해 주며 성운이의 애국적 감정을 감명 깊이 표현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 물론 산문 작품에서 서정적 스찔은 단순히 서정적 노래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형상 체계가 높은 정서로 일관되게 하는 데 있다.

서정이 흘러 넘치는 작품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가 예술가들 자신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고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진실한 형상을 담기 위한 예술적 형식을 탐구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 열정과 서정으로 구현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오직 이러한 작품만이 근로자들의 높은 미학 정서적 요구에 대답할 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당적 문학 예술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주제 취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강 준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승리로 끝맺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천추에 길이 빛날 거대한 사변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주권을 틀어 쥔 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력하며 그 힘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마저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세계 인민 앞에 보여 주었다.

우리 인민의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를 문학 예술에 반영하는 것은 비단 전쟁 시기에만 의의가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더우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현 시기에 각별히 중요하다.

미제를 비롯한 16 개 추종 국가들의 침공을 물리친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근로자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승리의 신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피로써 사수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끝까지 수호할 수 있는 혁명 정신을 배양한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미제의 침략적 본성, 야수성, 잔인성 등과 함께 시수, 자본가들의 착취적 및 반인민적 본질을 여지 없이 폭로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혁명적 경각성과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감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고무한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조국 해방 전쟁을 취급한 적지 않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 속에는 많은 성과작들도 있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벌써 10 년이 지났으나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영웅 서사시적 대화폭의 작품들이 적게 나오고 있으며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주의, 애국주의로 빛나는 위훈과 업적들을 원만하게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때문에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주제의 창작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1

조국 해방 전쟁—그것은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을 해방 후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렀으며 그들을 영웅으로, 불사조로 키워 낸 시련의 불'길이였다.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년 학생들이 미제의 야수적 침략이 개시되자 총칼을 거머쥐고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결전의 길에 서슴 없이 나섰으며 그 속에서 고상한 인간 정신의 무궁한 힘을 남김 없이 발휘하였다. 따라서 우리 문학 예술이 새롭게 영웅 불사조의 자태와 애국에 불타는 그들의 열정, 락관주의를 반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문학 예술에 창조된 영웅 불사조의 자태는 전쟁 당시의 현실에 대한 사실주의적 반영이면서 동시에 영웅의 본질에 대한 리해 즉 영웅적인 것과 비범한 것, 영웅적인 것과 평범한 것의 관계에 대한 미학 리론적 문제들의 성과적인 해결과 관련을 갖는다.

김 일성 동지는 1951년 6월 30일 종견 작가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영웅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의 영웅들은 어제'날의 로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들이며 또는 그들의 자제들이다. 그들의 풍부한 감정과 인간성.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심, 그대로를 묘사한다면 오늘날의 우리 공화국의 영웅들이 될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3 권, 1953년 판, 292~293 페지)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성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리해는 사실주의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전형화의 원칙을 옳게 구현할 수 있는 중요 관건이다.

영웅성의 본질은 그 어떤 신기한 사실이나 비범한 인간들의 속성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특성과 관련되여 있다. 영웅적인 것을 다만 신기한 것, 비범한 것으로만 보는 현상은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성의 본질을 홀시 또는 류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며 나아가서는 그의 생활적 지반을 외곡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성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계급적 립장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정신적 특성의 발현이다. 계급적 자각, 조국의 운명에 대한 그들의 높은 책임감은 기적적인 위훈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미증유의 힘을 낳게 한 생활적 기반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 예술은 이와 같은 생활의 특성에 의하여 수 많은 전형을 창조하였는데 그것은 생활에 대한 사실주의적 침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과거 랑만주의 작가들도 모순된 현실에 대항하여 선진적인 리상을 구현한 비상한 성격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공은 영웅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발붙이지 못 한 특수한 것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적으로 평범한 인간들이 영웅주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 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 예술이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주의를 평범한 것과 영웅적인 것의 통일 속에서 찾지 않고 비범한 것에서만 찾으려 하거나 반대로 범속한 것에서만 찾으려 한다면 미학 리론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 문학 예술은 최근 년간에만 하여도 가극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중편 소설 《전사들》 등과 같은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이에 일정하게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 조국 해방 전쟁에서 발휘한 인민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부분적인 약점들이 있다.

그것은 소위 주인공의 개성적인 것, 생활적인 것을 《탐구》한다고 하면서 사말적인 현상에만 매달려서 평범한 인간들 속에서 발현되는 영웅성의 생활적 기반을 보지 못 한 것이다. 이리하여 이런 작품들은 부지불식간에 영웅적인 것과 평범한 것의 통일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사실주의적 전형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작품들이 작가의 의도는 어떻든 간에 자연주의의 길로 떨어지게 되며 영웅적인 성격을 외곡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편 소설 《대오에서서》가 그렇게 되였다.

이 작품은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성장하는 한 전사의 생활을 통하여 인민 군대의 동지애, 전투의 불'길 속에서도 시들 줄 모르는 전사들의 해학과 락천주의 등을 보여 주려 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소위 《인간》을 탐구하려 한 나머지 전형화의 원칙에서 멀리 떨어졌다.

작품의 주인공은 타고 난 《겁쟁이》이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밤에는 바깥 출입조차 홀로는 하지 못 할 정도로 무서움을 잘 타는 성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천적인 겁쟁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 무서움을 잘 타는 주인공의 나약한 기질이 생사의 판가리 싸움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는가 하는 데 있다. 작품은 주인공의 비겁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지어 전투 행정에서 내'가를 건너는 주인공은 물'결에 씻긴 차돌을 밟지 않으려고 서성거리기까지 한다) 그의 극복 과정을 전혀 우연한 동기에 두고 있다. 작가는 주인공의 비겁성을 사상적이며 계급적인 각오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선천적인 《기질》의 표현으로 되게 하였으며 그의 극복 과정을 그 어떤 나약한 기질의 《갱질》에 있는듯이 묘사하였다. 이리하여 작품은 전쟁의 준엄한 시련 속에서 강철로 단련되여 가는 주인공의 형상을 보여 주지 못 하고 보잘 것 없는 소시민적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 군대의 영웅성과 조국 해방 전쟁의 자랑찬 력사를 비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범한 인간들에게서 발현되는 영웅성의 발굴은 영웅들의 업적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공감과 시'적 체험의 귀중한 열매이다. 따라서 모든 작품의 열정과 기백은 영웅들의 업적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공감과 체험의 진실성에 의존한다. 서사시 《노래는 철쇄로 묶을 수 없다》가 많은 지면에서 시인의 주정 로로를 도입하여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을 천명하려고 하였으나 적지 않은 경우 빈 소리로, 나아가서는 시인의 안온한 서정토로로 되게 한 중요한 원인도 바로 현실에 대한 작가적 공감의 부족, 체험의 비진실성에 있다.

이 서사시는 미제 야수들에게 일시적으로 강점된 지역에서 수 많은 가정적 불행을 겪은 수수한 한 어머니를 통하여 그에게서 발현되는 영웅성의 바탕을 구체적 생활에서 보여 주려고 하였다. 분여 받은 땅에 대한 애착, 어린 것에 대한 사랑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원쑤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분연히 일어 나는 앙양된 영웅적 정신의 자태를 감득하지 못 한다. 원쑤들에게 붙들렸을 때에도 그는 거의 지난날의 집 생각, 어린것들에 대한 생각 뿐이며 정찰 임무를 맡고 마을에 내려 갈 때에도 불타 버린 집 생각 뿐이다. 이리하여 작품은 부지불식간에 나약한 서정과

애수를 풍기게 하였으며 시인의 《기백》 있는 서정 토로로써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것은 서정적 주인공의 나약성, 애수 등의 감정이 바로 시인의 안온한 서정에 의하여 조성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분석한 작품들의 실례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인민 군대와 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주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열렬한 공감과 함께 사실주의적 탐구의 정신에서 생활을 진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모든 사람들의 가정, 고향, 조국의 신성한 이름과 결부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원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를 품고 용약 원쑤 격멸에로 나가게 하였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이 겪은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모두 살인귀적 만행을 감행한 미제에 있다. 이것은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우리 문학 예술에 심각한 극성을 부여하였으며 작품에 설정된 갈등이 어떠한 양상을 가졌든 간에 미제와 조선 인민 간의 갈등이 기본을 이루게 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우리 문학 예술은 이미 창작 실천을 통하여 일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아직도 론의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예술적 갈등은 생활적 갈등에 기초하고 있으나 작가의 미학적 리상과 결합되여 있다는 점에서 생활적 갈등과 구별된다. 따라서 구체적이며 전형적인 갈등은 작가의 진지한 탐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요하게는 대립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전형적 성격의 탐구를 전제로 한다.

전형적 성격의 탐구에서 특히 론의하여야 할 문제는 원쑤들에 대한 형상이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 예술이 창조한 미제 살인귀들의 형상은 적지 않은 경우에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야수성, 약탈성만을 보여 줌으로써 인간 말세의 교육을 받은 인간 개성으로서는 부족점이 많다. 더우기 어떤 작품들은 적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만 그리고 있다. 따라서 일부 작품들에 형상화된 미제는 개념화된 《야수》,《살인귀》 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력한 존재로서만 표현되고 있다.

적에 대한 형상화에서 주되는 것은 그들의 정신 도덕적 상태가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 도덕 상태와는 비길 바 없이 저렬하다는 것, 그것은 력사의 무대에서 멸망의 운명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들의 형상이 무조건 천치로 될 수 있다거나 우둔하기만 한 존재로서 묘사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적들은 교활하고 음흉하며 악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 예술은 살인마로서의 인간 개성을 가진 적들의 본성을 똑똑히 보여 주어야 한다.

일부 작품에 등장하는 원쑤들 특히 미제에 대한 추상화, 개념화, 과소 평가는 미제의 전형화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성을 약화시키며 갈등을 추상적인 것으로 또는 심각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다. 갈등의 첨예성은 개성화된 성격들의 대립되는 사상과 감정의 심각성에 의존한다. 인간 개성이 창조되지 못한 작품에 구체적이며 전형적인 갈등이 있기 만무하며 그것은 십상 생활적 지반을 잃어 버린 것이며 도식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미제와 조선 인민 간의 적대적 갈등은 조국 해방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 기본 갈등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 예술 작품들에는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을 일방으로 하고 원쑤들을 타방으로 한 대립되는 형상 집단들이 창조되였다. 례하면 연극 《습격》, 가극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등 수 많은 작품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적아 간의 갈등이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에서 기본을 이루며 생활의 진실을 담보한다고 해서 모든 작품들에 다 적아 간의 대립되는 형상 집단들을 반드시 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작 실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작품에 원쑤들을 등장시키지 않고서도 적아 간의 첨예한 갈등을 기본으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런 작품들에서의 적아 간의 갈등은 인민 군대와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하는 내'적인 힘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갈등의 형태는 다양하며 기본 갈등은 이 다양한 갈등의 발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실 우리의 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문학 예술의 창조적인 경험은 다양한 갈등이 결코 적아 간의 기본 갈등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더욱 생활적이며 진실한 것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경우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문학 예술에서의 다양한 갈등은 부차적인 갈등으로써 기본 갈등을 보강한다.

적아 간의 기본 갈등을 홀시하고 부차적인 갈등에만 치중하는 것은 생활의 진실과 조국 해방 전쟁의 력사를 외곡하는 것으로 되며 반면에 다양한 부차적인 갈등을 무시하고 적아 간의 기본 갈등에만 치중하는 것은 생활을 단순화한다.

전자의 실례는 이미 우에서 간단히 고찰한 중편 소설 《대오에 서서》가 해당된다. 작품의 주인공은 엄연히 인민 군대의 전투 서렬에 참가하고 있음으로 하여 적아 간의 기본 갈등의 분규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주인공의 선천적인 《비겁성》을 사상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것으로 과장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원쑤들과의 투쟁과 유기적으로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실지 주인공을 적아 간의 기본 갈등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 문학 예술 창조에서 농후하게 나타나는 편향은 후자의 경우이다. 이런 작품들은 기본 갈등을 보강하고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 주는 부차적인 갈등의 설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들과 생활 화폭들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잡다하고 비특징적인 사실들을 라렬하고 있다. 비특징적인 전투 장면들의 반복, 생활적 지반에 뿌리 박지 못 한 추상적인 결의, 비개성적인 서정과 주정 토로 등이 그것이다. 비교적 일정한 예술적 수준에서 인민 군대의 영웅적인 기개와 저주의 악랄성을 보여 준 연극 《습격》의 경우에도 이에서 벗어

나지 못 한다.

연극 《습격》에는 주인공의 고향을 해방할 당면한 전투와 관련하여 상전의 행세를 하면서 온갖 만행을 감행하는 《국군》 장교인 지주의 자식과 주인공 간에 구체적인 갈등이 설정되고 있다. 이것은 적아 간의 갈등을 구체적이며 생활적인 충돌에 두려는 문제 설정의 진실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면모는 일정하게 인상적으로 안겨 온다. 그러나 이 기본 갈등을 보강하고 풍부화해 주는 부차적인 갈등과 인간들의 극적 관계에 주의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주인공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은 비개성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되였다.

이상의 사실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문학 예술 작품에서 부차적인 갈등과 인물들의 극적 관계를 무시할 때 생활을 단순화하고 극적 긴장성을 약화시킨다. 더우기 적아 간의 갈등을 인물들의 극적 체험 및 열정과 관련이 없이 표면에 나타나는 가렬한 전투 장면만으로 대치시킬 때 작품은 도식을 면할 수 없다.

기본 갈등을 보강하고 풍부화하는 조건에서 다양한 부차적 갈등을 설정하는 것은 작품을 보다 진실한 생활적 내용으로 충만케 하는 요인으로 된다.

예술적 갈등에 대한 이와 같은 원칙적인 해명에 의해서만 우리는 대담하고 탐구적인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의 해명에 대하여 론의할 수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은 처음부터 계급적 자각과 각오 정도가 높은 주인공들과 함께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각이하게 자라나는 인간 전형들을 적지 않게 창조하였다.

과거에는 한 평의 땅뙈기마저 못 가지고 지주에게 예속되여 살던 농민이였으나 해방 후 토지를 분여 받고 생활이 유족해지자 과거의 쓰라린 처지를 잊어버리고 소소유자의 보수적 근성에 사로잡힌 한 농민의 극적 운명을 기본 주인공과의 다양한 관계에서 보여 준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원쑤를 물리치는 결전의 길에 나선 지휘관이기는 하나 군사 기재와 유생 력량의 수'자만을 과대 평가하고 주인공 박 대우 중대장을 비롯한 전사들의 정치 도덕적인 힘을 볼 줄 모르는 구 본수와 같은 전형도 창조한 중편 소설 《전사들》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문학 예술은 아직 계급적 자각과 각오 정도, 각이한 계급과 계층 출신 인물들의 운명의 극적인 변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여 주지 못 하고 있다.

조국 해방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시기였으며 다양한 생활 경로와 사상적 준비를 가지고 이 시련을 뚫고 나아가게 하였다. 전쟁의 엄혹한 시련 속에서 영웅 불사조로 자라나는 투사들의 형상과 함께 이러한 인물들의 장성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생활의 모범과 산 교훈을 찾는다.

이들의 장성 과정에 대한 진실한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구체적이고 다양한 갈등의 설정과 관련된다. 적아 간의 기본 갈등선 상에 놓여 있는 각이한 준비 정도와 다양한 생활 경로를 밟아 온 긍정 인물들의 호상 관계는 결코 단조로울 수 없다.

이러한 관계를 호도할 때 사실 상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엄혹한 시련을 이겨 낸 우리 인민의 정신 세계를 진실하게 보여 줄 수는 없을 것이다.

3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주제의 창작은 문학 예술의 현대성을 가장 예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성을 예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높은 형상성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특히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작품 창작은 이미 력사적인 과거로 된 10 년 전의 생활을 취급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실적 주제의 작품 창작에서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미감에 맞게 형상화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 우리 인민의 감정은 전투적이며 진취적인 동시에 락천적이다. 이것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이 지녔던 고상한 감정과 공통된다. 그런데 이것은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문학 예술 작품을 시종 일관 폭탄과 총성이 작렬하는 《삼엄한》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부 작품들은 작품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열정과 전투 장면을 혼돈한 데로부터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열정을 《삼엄한》 전투 분위기의 지속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오늘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을 리 없다. 작품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열정은 우선 주인공들의 심각한 극적 체험, 영웅적인 성격을 통하여 구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미감에 맞는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며 다양한 형식과 수법을 찾아 내야 한다.

작품의 미학적 영향력은 형상성과 특히는 서정성과 결부되여 있다. 서정성은 형상성의 내'적 속성을 이루며 형상에 액즙과 호흡을 부여하면서 독자들과 관중들의 심장에 침투한다.

따라서 서정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는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우리 문학 예술의 사상 예술성을 제고하는 데 직접 이바지한다.

그러나 일부 작품들의 창작 실천에서는 서정성에 대한 문제가 옳게 해결되지 못 하고 있으며 편협성과 일면성을 범하고 있다. 즉 서정성을 어떤 국한된 주제와 생활 화폭에서만 표현되는 것으로 즉 사랑이나 우정, 자연 묘사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전투 환경에서는 서정성을 발현시킬 수 없는듯이 간주하는 경향이다.

이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일면적인 관찰인가 하는 것은 벌써 10 년 전에 창작된, 전투 마당에 선 인민군 전사들의 고조된 감정을 노래한 가요들 《결전의 길로》, 《전호 속의 나의 노래》, 《문경 고개》 등이 오늘도 여전히 서정적 주인공 인민군 전사들의 드높은 기개와 들끓는 열정이 전투적인 서정과 결합되여 우리의 심장을 그렇듯 끌어 잡고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도 명백하다.

문제는 인민 군대 용사들의 전투 행정에 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하며 전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지 못 하는 데 있다.

서정성 그것은 고조된 인간 감정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사랑, 우정, 자

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서정이 풍부하게 발현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정열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향,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를 목숨으로 사수하기 위하여 전선에 나선 우리 인민 군대의 감정과 열정이야말로 가장 서정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다함 없는 충성심,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이보다 더 선명하고 정열적인 감정이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 전투적인 열정은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전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의 결합이 있다. 문제는 우리 인민 군대의 가정, 고향,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들의 열정을 구체적이고도 개성적인 것으로 되게 하는 데 있다.

작가, 예술인들의 주정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서정적 방식의 작품과는 달리 서사적 방식의 작품에서 서정성을 강화하는 기본은 구체적이고도 비반복적인 갈등의 설정과 관련된다. 이 갈등은 바로 대립되는 사상과 감정을 가진 성격들에 의하여 조성되며 그러한 갈등 속에서 등장 인물들은 자기의 축적된 감정과 정열을 표현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 예술이 전투성, 혁명성을 높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본 고리는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 각오와 열정이다.

모든 창작 분야에서 그렇지만 특히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이 발휘한 초인간적인 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마저 서슴지 않고 바치는 애국주의, 혁명적 락관주의 등 고귀한 정신은 절대로 랭담한 방관자로서나 서사생의 립장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그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체험으로써만 구현할 수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필수적인 이 공감과 체험은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이러저러한 자료의 수집에 앞서 작가 자신이 투사, 애국자로서의 정신 상태를 튼튼히 갖추는 데 있다.

그럼으로써만 조국의 운명을 량 어깨에 걸머지고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영웅적으로 승리한 우리 인민 군대와 인민들을 보다 진실하게 형상할 수 있다

문답 학습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옳게 보는 문제는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할 줄 앎으로써만 적아를 옳게 식별할 수 있고 적아를 식별함으로써만 적을 고립시키고 그와 성과적으로 투쟁하며 우리 편 사람들을 더욱 철저히 교양 개조하여 당의 주위에 굳건히 묶어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본질을 옳게 파악할 줄 앎으로써만 적아 간의 적대적 계선을 모호하게 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간파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맑스주의적 본질을 폭로 분쇄할 수 있다.

* *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수 많은 철학자, 사회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이 해명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력사적 기간이 요구되였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말하는 동물로 밖에 보지 못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 보았다. 또한 선천적인 선(善)에서 혹은 악(惡)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해석들의 공통성은 모두가 인간을 사회적 인간으로 보지 못 하였다는 점 즉 인간을 사회적, 계급적 관계 속에서 보지 못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과학 발전의 수준이 낮고 인간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세계관에 도달하지 못 한 것과 관련되여 있었다.

특히 부르조아지가 반동화됨에 따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미숙한 해석은 그들의 착취적 본성을 은폐하려는 목적과 결부되여 더욱더 사회 계급적 관계와는 거리가 먼 데로 해석되여 갔다. 그리하여 《초계급적 인간》, 《전인류에 공통한 본질》에 대한 해석이 류행하게 되였다.

맑스주의의 발생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미숙한 해석과 반동적 해석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맑스는 인간의 본질을 관념론적으로 해석한 포이에르바하의 리론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간의 본질은 개별적인 개인에 고유한 추상물이 아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질은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인 것이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 2 권 2 분책, 139 페지)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그들의 자연적인 생리적 본능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사회적 관계 하에서 살아가니 만큼 우리는 사회를 떠난, 일정한 사회 계급적 관계를 떠난 고립된 인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을 사회적 관계와 떼여 내서 단독적인 개체로 보고 그들에게서 공통적인 속성을 추상한다면, 그것은 다만 인간의 자연적 본질 즉 동물적 본능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본질은 다 같다. 본능에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적대적 계급 관계도 없고 옛날 사람도, 현대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착취자들, 제국주의자들이 원하는 바다—근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착취 압박한다는 것을 모르게 하고 계속 착취하려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이, 그 어떤 《전 인류적인》 리성과 량심이 존재하는듯이 떠들면서 인간의 본질은 다 같다는 데로 귀결시키려는 《리론》의 진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든 간에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다.》라고 하며 그들은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수요를 만족시키기를 바라며 행복을 갈망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들이 볼 때에는 특히 《원자 구름의 그림자》, 《원자 죽음의 유령》 앞에서는 계급성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살려는 《본성》만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원자력 시대에 있어서는 적대 계급과도 싸우지 말고 《리성적으로 타협해》 가지고 《평화 속에서》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대 계급은 아무리 착취하고 압박하고 먹으려 덤벼 들어도 대항하지 말고 온순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려는 이러한 《리론》의 반동성을 폭로 분쇄하는 열쇠는 바로 인간을 그들이 존재하는 그대로, 사회적인 제 관계의 총체에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맑스가 천명한 립장—맑스-레닌주의의 립장이다.

인간은 살아 나가기 위하여 자연을 개조하며 생산 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활동은 개별적 인간들의 고립된 움직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으로 된다. 인간은 로동 활동 과정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인간들 호상간에 관계를 맺는다. 인간들 간의 이 호상 관계는 바로 사회적 관계로 된다.

사회적 관계에는 물질적 관계(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생산, 분배, 교환 관계 등등)와 사상적 관계(정치적, 법률적 견해, 철학, 도덕, 예술 등등)가 속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을 통털어 말할 때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라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과 어떻게 련관되여 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함으로써만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해명할 수 있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인 집단적인 소유자이고, 로동에 의해서 분배 받으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며, 도덕적으로 집단주의 원칙에 서 있는 사람의 본질은 바로 사회주의 근로자, 공산주의자이다. 반면에 그가 경제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련결되여 있고 자본과 토지에 의거해서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정치적으로 봉건주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미 제국주의와 타협하며, 도덕적으로 개인 리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은 지주, 자본가, 반혁명 분자로 규정된다.

물론 이것은 전형적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할 때에는 사회적 제 관계 중에서도 어떤 관계를 선차적으로 보아야 하고, 어떤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 하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계급적 출신도 좋고 정치적 립장도 확고한데 도덕적으로 인간성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에서 참으로 천태만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사회적 제 관계의 총체라 하여 사회적 관계들의 기계적 총화로서 그것을 규정하면 정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여기로부터 사회적 제 관계 중에서도 그 위치와 역할로 보아 가장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관계에서 우선 사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적 제 관계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일차적인 관계는 물질적 관계이다. 사상적 제 관계들은 경제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2 차적인 것이다.

계급 사회에서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의하여 사회 성원들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갈라지며 정치적, 철학적 견해, 도덕, 예술 등도 착취 계급의 그것과 피착취 계급의 그것으로 갈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선 물질적 관계에 의해서 갈라지는 계급적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물질적, 계급적 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관계, 정치적 견해에서 사람들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적, 정치적 관계를 위주로 하여 전체 사회적 관계들과 련관시켜 봄으로써만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 *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조건에서 실지 사람들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사람들의 얼굴에는 계급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겉보기에 사람들은 다 같다. 생리적 구조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 어떤 광학 기구로써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본질을 알아 낼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실천 활동 과정에서 맺어지는 관계인 만큼 그것은 사업과 실천 행정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 계급적 본질은 바로 실천 행정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방법적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우선 믿고 실천 행정에서 검열하는 것이다.

로동 실천 과정에서 열성이 있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좋은 사람이다. 사람들의 사회 계급적 본질은 이와 같은 실천 행정에서의 물질적 성과로서 표현된다.

실천 행정에 대한 성과에 바로 맑스주의자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현실적 규준이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군중 로선을 관철함에 있어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를 찾아 온 사람이라면 우선 믿고 사업을 통하여 검열해야 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을 통하여 검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에서 열성적이고 일을 잘 해서 성과를 거둔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사업에서 열성을 내지 않고 나쁜 것을 한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인테리 성분이요, 저 사람은 남조선 출신이요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 (선집 제 5 권, 513 페지)

사람의 본질은 특히 어려운 사업 과정에서, 가장 곤난한 환경에서, 계급 투쟁 행정에서 똑똑히 나타난다.

물론 이런 실천 과정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대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놈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업에서 열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검열하는 데는 반드시 일정한 실천적 기간이 요구되며 특히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는 기간이 요구된다. 나쁜 놈들은 어려운 때에 가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때에 가서 자기의 혁명적 열의와 적극성을 더욱더 높이 발양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본질을 구명하는 데는 이 원칙만으로써는 부족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질이 변한다는 것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생산력의 변화 발전에 따라 경제적 관계들이 변화 발전하며 경제적 관계들이 변화 발전함에 따라 기타의 사회적 관계들도 변화 발전한다. 또 이 관계들은 호상 작용에 의하여서도 변화 발전한다. 따라서 사

10 회적 제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의 본질도 변화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 사람들도 변화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조건 하에서 좀 결함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는 사람도 좋게 변화시킬 수 있고 교양하여 우리 사람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실천 행정의 겸열을 통해서 좀 좋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하여 그에게 고정 불변한 평가를 내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북반부에는 지주와 자본가, 반혁명 분자를 낳을 수 있는 경제적 관계가 완전히 없어졌으니 만큼 그가 의식적으로 딴 마음을 먹고 우리를 반대하여 나오지 않는 이상 부단히 교양하고 개조하기에 달라 붙으면 모든 군중을 다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길 확실, 리 신자를 비롯한 천리마 기수들의 사업 경험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반혁명 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다 개조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실천적 결론은 인간 개조의 가능성에 대한 리론을 진리로서 증명해 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 군중 로선 관철에서 보다 중요한 측면이다.

이러한 원칙을 리론적으로 파악함으로써만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보다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으며 모든 군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굳게 묶어 세우고 당과 대중의 철석 같은 통일 단결을 보장할 수 있다.

김 병 웅

(《근로자》 제 11 호 21페지의 미국 경제 지수 대비는 1957~1958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임)

근로자 제 12 호 (루계 226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6월 20일 인 쇄 • 1963년 6월 17일

ㄱ—330360 값 40 전

서적 안내

학습 자료

간부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의 조치에 따라 본사는 매 시기 제기되는 당 문헌을 간부들이 학습하는 데 리론적 방조를 주기 위하여 《학습 자료》를 출판한다.

《학습 자료》는 **당 문헌 집중 학습 참고 자료**를 간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한다.

《학습 자료》에는 이 외에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적 문제들과 국제 국내 정세를 간부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참고 자료들, 그리고 토론 자료들도 수록하게 된다.

《학습 자료》는 간부들이 당의 의도를 리론적으로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높이는 데 방조를 주게 될 것이다.

금번 발간된 《학습 자료》 창간호(6월 호)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집중 학습 자료가 수록되였다.

근로자사 편집국